

뉴욕장신 뉴스레터



제 1호
2013년 11월 23일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KPCA,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NY)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http://www.nypts.org>

학장 인사말

“거룩한 꿈”



학장 유재도 박사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꿈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뉴욕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아름다운 자체 건물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의 역사는 사람의 나이로 말하면 가정과 직장을 갖고 한참 일하며 전진하여야 할 나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입니다. 신앙의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교회는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성도들과 한인들의 중심체입니다. 그 중심체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지속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신학대학입니다. 그러므로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은 이제 자체 건물과 캠퍼스를 갖고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며 제공하여야 합니다. 개인이던 신학대학이던 셋방살이를 하게 되면 마음이 정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자기의 집을 마련하면 안정이 되고, 집 주변의 마당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을 심기도 하고, 그 마당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미국의 동부인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뉴욕은 오늘날 세계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유엔 본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100개가 넘는 언어가 이민자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인종이 골고루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날 이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슬로건이 하나 생각납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말입니다. 뉴욕은 이런 슬로건을 더욱 실감나게 하는 곳입니다.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뉴욕장신대는 이제 자체 건물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큰 비전을 갖고 올바른 신학 훈련을 시키며 귀한 주의 일꾼들을 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한 도시 두 개를 생각해보면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다른 하나는 안디옥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한국의 서울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은 안디

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까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할 책임을 맡은 곳은 이제 뉴욕의 장신대학입니다.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의 좋은 신앙을 계속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여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전통과 좋은 문화와 좋은 신앙은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뿌리입니다. 미국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1977년에 뿌리(Roots) 라는 소설을 써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책은 작가가 12년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가정의 뿌리를 찾아서 탐구하며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쓰기 까지 그의 가문은 아프리카 감비아로부터 노예로 끌려와 6세대가 흘러갔습니다. 그 소설은 미국에 나와 살고 있는 수많은 흑인들과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구화된 신학을 일방적으로 배우고 가르쳐왔습니다. 과거에 그것을 통하여 많은 귀한 진리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의 좋은 신앙과 문화와 전통도 배우고 전달하여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신학대학이 그런 일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체 건물을 꼭 필요로 합니다.

끝으로 뉴욕 장신대는 미국과 전 세계의 교회에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만들어 배출하여야 할 엄숙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에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사할 평신도 리더들을 만들어 보내야 할 책임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해외한인장로회” 라는 우리 교단의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하며 뉴욕장신대의 이 거룩한 꿈을 함께 꾸고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주고, 함께 협력할 주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꿈은 주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19절을 암송하며 글을 마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의 꿈과 비전>

-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18-20)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 둘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 셋째, 전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4-15)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한 시야와 언어와 지식과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 넷째, 해외한인교회와 사회를 위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28)
교회와 사회의 각 분야에 필요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 다섯째, 한국교회의 귀한 신앙과 신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2-47)
서구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의 좋은 면들을 발전 계승 시키는 것입니다.
- 여섯째, 질적으로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이 되고 자체 건물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데 있어 탁월하기를 원합니다.
- 일곱째, 미국과 전 세계에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미국은 다시 복음과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할 선교지입니다.

“착각(錯覺)이라는 낭패”



학감 이기백 목사

착각(錯覺)이라는 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없는데도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 경우이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는 다르게 생각함’ 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한다. 그러니 바꾸어 생각을 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한다. 반대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한다. 진리가 모순으로 기억되고, 모순은 진리로 대접을 받는 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의 착각들, 곧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지 모른다. 곧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모님, 곧 마리아와 요셉이 착각을 하고는 삼일을 헤매고 있는 이야기이다. 유월절의 행사 후에 고향으로 행하는 길에 발생되어진 일이다. 곧 예수님이 일행 중에 계시지 않는데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동행 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계시지 않았다. 계신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 착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다준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앞으로 향하여 가던 걸음을 자신 없게 만들어 버린다. 하룻길을 앞으로 나갔지만 결국은 삼일이 걸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착각은 분명 우리들의 삶을 허비하게 만든다. 있는 줄로 착각하였기에 걸음은 멈추었다. 있는 줄로 착각하였기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찾을 수 밖에는 없었다. 헤매면서 찾는 그 걸음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뿐이다. 모든 시간들은 그저 소모되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착각하며 사는 인생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착각하며 사는 인생은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는 가운데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눅 2:44-45)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열심을 다 잃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감감한데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는가? 나의 불평은 정당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착각하지는 않는가? 나의 분노와 감정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너의 분노는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착각하고 살지는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들 뿐이지 예수님은 계시지는 않았다. 그러니 우왕좌왕 갈팡질팡이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다. 질문하는 부모를 향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함’으로 대답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나누시며, 듣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 내 생각의 자리를 버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총무처장 나눔

“새로운 도약을 소망하면서”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요즘 차를 타고 학교에 갈 때 펠리사이드 파크웨이와 알파인 지역을 통과하다 보면 곱게 물든 단풍이 마음을 한껏 설레이게 한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이런 풍경을 감상하면서 드라이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아닐 것이다.

올해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감사한 점이 너무나 많다. 전에는 학교 파킹 문제, 여름에는 더위와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이젠 그럴 걱정이 없다. 넓은 파킹장이 기다리고 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옆의 창문을 열면 화사한 단풍이 우리를 반긴다. 또 강의가 끝나고 잘 정돈된 넓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새해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겠지 소망해 본다.

내가 우리 학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89년도 가을학기에 입학하면서 부터이다. M.Div. 3년, Th. M. 2년을 마치고 바로 강의를 맡게 되었다. 그때에는 학생들이 거의 80명이 되었고, 학교에서 부족한 나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었다. 동문이었기에, 또 그만큼 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그동안 교무과장, 학생처장, 사무처장, 총무처장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학교를 섬겨왔다. 그동안 학교의 여러가지 분규와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다. 학장 선거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학교가 나뉘어지고 서로 반목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괴로웠는지 모른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뿌듯한 사건은 내가 학교의 학적부를 지킨 사건이다. 거의 17, 18년전 내가 교무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집에 학적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의 학장과 운영진들이 총회와 대립해서 학교는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학적부를 학교에 반환하라고 독촉하고 있었다. 나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협을 받으면서도 학적부를 학교 측에 반납하지 않고 총회에 반납을 하였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찔한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그때 잘못 판단해서 학적부를 총회에 넘겨주지 않고 학교 측에 넘겨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지금 나는 월 노회나 총회에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 지금도 그 때의 학적부를 보면 감회가 새롭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매 순간 순간, 하루 하루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하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는 이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문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됴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이제 우리 학교도 새로운 선택과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체제, 새로운 학교건물, 새로운 여건 가운데 이제 우리 학교도 새롭게 발돋움할 때가 되었다. 최고의 교수진도 확보가 되었으니 이제는 소명감이 넘치고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추진하고 있는 자체 건물도 확보하고, 한국에서 오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I-20 Form도 발급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사무실에서 잠시 단상에 빠져본다.♠

“학교를 향한 사랑 & 감사”

김민(학생회장)

가을을 보내는 마음과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마음이 한때 어우러져 있는 11월입니다. 학교 오는 길에 제각기 고유의 빛깔을 내보이고 있는 단풍잎들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탄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학교 등교 첫 날이 기억납니다. 밤새도록 두려움과 설렘에 잠 못 이루고, 주체하기 힘든 벅찬 마음으로 첫 발을 떼었는데...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어떤 날은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깊은 영적 해석함에 감춰져 있는 열정과 인내의 마음을 보고, 저 자신의 무지와 부족함을 깨닫게 된 때도 있었습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통해, 저의 삶의 모순과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학우들의 하나님의 대한 사랑과 고백 앞에서는 어떠한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곤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여기에는 성별도, 인종도, 세대도, 나라와 문화도 개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어려운 이민의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되어야 함을, 그래서 우린 더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2013년 가을에 뉴저지 캠퍼스로 옮긴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낸 3개월보다 다가올 30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 학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은혜를 구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면을 빌어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사랑해 주신 교수님들과 학장 유재도 교수님, 학감 이기백 교수님, 그리고 저희 학생들에게 온유와 사랑을 늘 먼저 보여주신 총무처장 임선순 교수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

“7학기 수업을 마치고”

오보양 권사(아비장 한인교회)

꿈꾸는 요셉의 비전은 드디어 국가를 민족을 그리고 부모 형제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셉 버금가는 비져너리 백 목사님 내외분을 모시게 된지 햇수로 17년! 설새없이 되돌아 볼 겨를도 없이 달려온 날 수... 목사님께서서는 끈임없이 꿈을 꾸셨고 놀랍게도 그 꿈은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져 갔다. 어느날 느닷없이 선포하신 또 하나의 비전! “전교인의 선교사화, 전교인의 신학화” 아무리? 설마 아닐거야. 으~~ 현실이다. 어느 날 교수님들께서 오시게 되고 뉴욕장신 분교가 아비장에 세워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과 다름없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다. 라스팔마스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2주 동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업에 임해야 했다. 하루에 10시간씩 집중적인 수업,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업체는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 전화로 원거리 조정... 지금 생각하니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었으며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수 밖에!

아프리카는 선교의 땅 끝이다.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전 교인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하고 있으니 가장 긴장하는 것은 사탄일 수밖에... 그들은 7학기가 되기까지 공격을 해왔다. 1학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조짐이... 첫 번째 타겟은 바로 나... 수업 중 얼굴 안면 마비가 와서 빠른 시간 내에 한국으로 가 치료를 필요로 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서는 포기하지 말라 하신다. 섭섭한 생각이 오이 소배기처럼 마음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지만 성도를 누구보다 아

끼시는 우리 목사님이 저러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끝까지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벌써 3년 전을 말한다.

그 이후에도 매학기 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장하여 사탄은 공격을 그치지 않았다. 수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그들은 공격을 계속되었고 함께 시작했던 여러 학생이 중단하고 떠나는 일을 현장에서 겪어야 했다. 이만큼의 아픔을 감수 하면서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 수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한 이 몸부림이, 역으로 해석되어지니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분다. 아직도 한 학기를 남겨두고 있지만 우리는 겁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리라 귓가에 속삭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한 것은 방문하셨던 교수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배려이다. 이민정서를 이해하셔서인지 그분들의 격려와 학생들을 향한 이해 위에 쌓인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고 끈이었다. 7학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교수님들이실까? 설레임과 기대! 이곳을 찾아 주신 학장님과 학감님, 따뜻한 수업이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열정의 수업이었음을 학생들이 한입처럼 말 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파트너의 배신으로 가슴 아파 하면서도 끝까지 수업을 포기하지 않으신 김장로님께도 파이팅을 보낸다.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학생의 이 아픔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 해 주셨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싶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 끝까지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학교 소식 및 광고

2013년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

본교 학생회가 주관한 2013년 신입생을 위한 환영회를 9월 8일 하베스트 교회에서 열었다. 이날 신입생 환영회에는 교수들과 동문회에서 참석하여 새로이 입학하는 학우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동문회(회장 신상필목사)에서 마련한 장학금 전달하는 순서를 가짐으로 선후배의 끈끈한 관계가 고취됨과 아울러 학우들의 학업을 더욱 양양시켰다.

유럽노회 박종범 목사 위탁교육

본교에서는 2013년 9월 3일부터 6일까지 해외한인장로회 유럽노회의 위탁을 받아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종범 목사의 헌법과 한국교회사 등 교단 가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케 하였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박목사는 해외한인장로회의 회원으로 영국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신앙 수련회 및 학우회 총회

2013년 가을 학기 신앙 수련회를 9월 12일 뉴욕노회 방주교회(김천수목사) 뉴욕노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는 최호섭목사(뉴욕영락교회) 김인선 선교사(니카라과) 그리고 윤도근 선교사(볼리비아)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와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어서 학생회 정기 총회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된 임원들은 학우회 회장 김민, 부회장 박대호, 총무 신경호, 서기 송천식, 회계 오영숙학우 등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뉴욕장신 동문 체육대회

본교 동문회에서 지난 9월 23일 뉴욕 Cunningham Park에서 동문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친선 체육대회를 가졌다. 신상필 동문 회장의 인도와 강준창 동문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는 제하에 설교와 신임학장인 유재도박사의 축도로 예배를 드렸으며 푸짐한 점심 후에 체육대회로 동문간에 관계를 돈독히 가졌다.

뉴욕장로회 신학대학 아비장 분교 인텐시브 강의

2010년부터 개설된 뉴욕장신 아비장분교에 신임 유재도 학장과 이기백 학감이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텐시브 강의를 위해 현지에 방문해서 아비장의 뉴욕장신 학우들과 말씀과 신학(기독교 교육, 설교학, 교회론, 성경적 리더십)을 함께 나누었다. 현지 선교사이며 아비장 한인교회 담임 백성철목사(본교동문)의 ‘전교인 선교사화’ ‘전교인 신학화’의 슬로건 아래 점차적으로 전 교인들이 신학을 공부하여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이경숙 동문 목사 안수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제49회 뉴욕노회 임시노회 목사안수식이 11월 10일(주일) 뉴욕샘물장로교회(현영갑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임직을 받은 이경숙 목사는 2010년 본교 M.Div 출신으로 뉴욕샘물장로교회 장년부 전도사로 활동해왔다. 노회장 김천수 목사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회장의 서약과 안수위원의 안수기도, 악수례가 진행되었고 노회장의 선포가 이어졌다.

I-20 Form과 Tax Exempt 신청 추진중

본교는 I-20 Form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신학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I-20 Form을 취득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한편 학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면서 헌금하시는 여러 교우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Tax Exempt Program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 졸업을 위한 안내

<성경 종합시험>

- ◎ 일시: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 ◎ 장소: 본교 사무실

<졸업논문 안내>

1. 논문개요 제출: 2013년 12월 31일까지 A4용지로 5-6페이지 분량.
2. 제출한 논문 개요를 교직원회의에서 심사후 지도교수 배정.
3. M.Div 논문 분량은 A4 용지 70~100 페이지
4. 논문제출 마감일: 2014년 4월 30일.

해외 한인장로회(KPCA) 뉴욕 뉴저지권 노회소개

뉴욕노회

| | | |
|------------------|----------------|----------------|
| 노 회 장 : 김천수 목사 | 한성수 장로 | |
| 부 노 회 장 : 이상호 목사 | 부 서 기 : 최호섭 목사 | 회록서기 : 김연수 목사 |
| 서 기 : 김성은 목사 | 회 계 : 오지환 장로 | 부 회 계 : 이주익 장로 |
| 부회록서기 : 허용구 목사 | | |

동북노회

| | | |
|------------------|----------------|---------------|
| 노 회 장 : 최문병 목사 | 최판명 장로 | |
| 부 노 회 장 : 이수영 목사 | 부 서 기 : 유용진 목사 | 회록서기 : 이준규 목사 |
| 서 기 : 임근영 목사 | 회 계 : 홍성우 장로 | |
| 부회록서기 : 박용진 목사 | | |

뉴저지 노회

| | | |
|------------------|----------------|----------------|
| 노 회 장 : 정 철 목사 | 사봉진 장로 | |
| 부 노 회 장 : 김홍채 목사 | 부 서 기 : 김영호 목사 | 회록서기 : 박상돈 목사 |
| 서 기 : 한창수 목사 | 회 계 : 주영수 장로 | 부 회 계 : 김영일 장로 |
| 부회록서기 : 김도완 목사 | | |

뉴욕 장신대학(원) 소개

이사회

| | | |
|----------------|------------------|--------------|
| 이 사 장 : 안찬수 목사 | 부 이 사 장 : 조기봉 목사 | |
| 총 무 : 정도영 목사 | 서 기 : 김영호 목사 | 회 계 : 유용진 목사 |

동문회

| | |
|----------------|---------------|
| 회 장 : 신상필 목사 | 서 기 : 이상현 목사 |
| 총 무 : 김용철 목사 | 회 계 : 신유경 전도사 |
| 부 서 기 : 장치조 목사 | |

교수회



학장 유재도 박사
(기독교 교육)



이기백 교수
(실천신학)



임선순 교수
(역사신학)



김유태 교수
(신약신학)



김윤권 교수
(구약신학)



김삼천 교수
(구약신학)



전광성 교수
(구약신학)



김희건 교수
(조직신학)



김건철 교수
(선교신학)



박용범 교수
(기독교 윤리)



백성철 교수
(아비장 분교)



손안젤라 교수
(상담신학)



소기범 교수
(영성신학)

| | |
|---------|--|
| 김건철 교수 |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Th.M.) 영남대(B.A.) |
| 김삼천 교수 | Canada Christian College(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
| 김유태 교수 |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 (M.Div.) 연세대 (B.A.) |
| 김윤권 교수 |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Th.D cand.) 연세대(B.A. Th.M.) |
| 김희건 교수 | Drew University (Ph.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
| 박용범 교수 | Boston University (Th.D cand.)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서울대(B.A.) |
| 소기범 교수 | Chicago Theological Seminary(Ph.D)장로회신학대학원(M.Div.) 숭실대(B.A) |
| 손안젤라 교수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h.D., Th.M., M.Div.) Drew 신학교수 |
| 유재도 교수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Th.M) New Brunswick Seminary(M.Div.) 장신대 (B.Th.) |
| 이기백 교수 |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D.Min.) 장로회신학대학원(M.Div.) 계명대(B.A.) |
| 임선순 교수 |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Th.M., M.Div.) 연세행정대학원, 성균관대 (B.A.) |
| 전광성 교수 | 영국 St. Andrew University(Ph.D.) New Brunswick Seminary(M.Div.) 연세대(B.A.) |

학우회



최은주 학우



구정모 학우



김민 학우



김현미 학우



김명희 학우



박대호 학우



이미숙 학우



신경호 학우



오영숙 학우



이강희 학우



이경세 학우



이호심 학우



정선희 학우



인태성 학우



정신범 학우



김성숙 학우

아비장 캠퍼스



이보람 학우



박주현 학우



오길순 학우



김태정 학우



김선자 학우



김진의 학우



김평일 학우



오보양 학우

후원 안내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은 학교 발전 기금과 학교 건축 기금 두 가지 기금을 모읍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Pay to the order of N Y P T S”

학교 발전기금

| 번호 | 헌금하신 분 | 금 액 | 헌금일자 | 비 고 |
|----|--------|----------|---------|---------------|
| 1 | 송병기 목사 | 5,000.00 | 6-16-13 | 전 학장 (이사회 입금) |
| 2 | 최문병 목사 | 3,000.00 | 6-16-13 | 전 학감 |

학교 건축기금

| 번호 | 헌금하신 분 | 금 액 | 헌금일자 | 비 고 |
|----|--------------------------|----------|----------|---------------------------|
| 1 | Ran S. Cho | 500.00 | 8-22-13 | |
| 2 | Daniel D. Kim, D.D.S. | 5,000.00 | 8-28-13 | DANIEL D. KIM, D.D.S. LLC |
| 3 | First K. Plumming LLC | 300.00 | 10-9-13 | FIRST K. PLUMMING LLC |
| 4 | Jay Do Yu | 2,000.00 | 10-17-13 | 학장 가정 |
| 5 | 장가원 장로 | 500.00 | 11-3-13 | |
| 6 | 최경애 권사 | 300.00 | 10-10-13 | |
| 7 | 장경희 권사 | 100.00 | 11-14-13 | |

※ 신학교 발전 및 건축 기금을 위해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뉴욕 장로회 신학대 아비장 분교 강의 모습>

뉴욕장로회 신학대학(원) 2014년 봄 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요강

KPCA,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NY)

2014년 봄학기 전형일 : 2014년 1월 30일

| | |
|---------------|---|
| 모집학과 | 신학사 (B.Th.) 교역학석사 (M.Div.) 신학석사 (Th.M.)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추천서 (B.Th는 담임목사, M.Div는 노회장), 전형료 \$50. * 서류는 본교 홈페이지(http://www.nypts.org)에서 다운로드 |
| 입학전형일시 | 2014년 1월 30일(목) 오전 10시 본교 사무실 주소: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201-660-7778 Fax) 201-660-7779 |
| 전형과목 | 성경. 영어. 일반상식. 면접. |
| 개 강 일 | 2014년 2월 4일(화) 오전 9시 본교 강의실 주소 :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
| 강의시간 |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 오후 8시) |
| 원서교부 | 본교 사무실 주소 :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전화 : 201-660-7778 Fax : 201-660-7779 홈페이지 : http://www.nypts.org |
| 상담문의 | 학 감 : 이기백 목사 732-266-9013 총무처장 :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 |

인테시브(Intensive) 코스 안내

본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테시브 코스 개설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학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4년 2월 3일(월) - 2월 14일(금)

☞ 과 목 : 한국교회사, 헌법

☞ 수 업 료 : \$ 1,500

☞ 접 수 : 본교 사무실 (277 Closter Dock Rd., Closter, NJ 07624) Tel) 201-660-7778 Fax) 201-660-7779

☞ 연락전화 : 학감 이기백 목사 732-266-9013 /총무처장 임선순 목사 917-754-5220, 718-921-3277

구비서류 : 1) 미국대학교 졸업(예정) 및 성적증명서

2) 이력서 및 사진 2매

3) 당회장 추천서

4) 노회장 추천서

“뉴욕 장신 뉴스레터” 발행인 : 학장 유재도 / 편집장: 학감 이기백 / 편집차장 : 총무처장 임선순
뉴욕 장신 뉴스레터는 일년에 4번 발행됩니다.